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5개년(2012~2016)

운영·사업 보고서

www.bestboy.co.kr

여성가족부 · 복권위원회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성남시

안나의 집 ANNAHOUSE

Contents

Ⅰ 프롤로그

04 발간사
05 인사말
06 한눈에 보는 중장기 이슈

Ⅱ 기관소개

운영법인 07
쉼터개요 08

Ⅲ 운영 및 사업 보고

12 운영보고
17 사업보고

Ⅳ 중장기 타임라인

희망이 초대석 25
봉사자의 글·봉사자 인터뷰 27
연계기관의 글 30
후원자의 글 31

Ⅴ 발전방향

32 중장기 발전방향

발간사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에서는
"아이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마을,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 이웃이 먼 친척보다 가깝게 지내면서 마을전체가 공동육아를 하며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왔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가정의 해체(이혼, 미혼부모)로 공동육아의 장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갈 곳을 잃은 청소년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장기쉼터가 과거의 마을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매일 노숙인 급식소를 마치고 퇴근길에 중장기쉼터를 방문할 때마다 각자 자신의 공부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추운 겨울 이불속에서 따뜻하게 누워있는 모습, 재미있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중장기쉼터라는 따뜻한 울타리 아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중장기 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장기 쉼터가 유지되어야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안에서 안전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쉼터가 사회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환경은 조부모, 친척,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해체된 가정의 경우에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더 많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역할을 해주신 많은 봉사자, 후원자, 지역사회 내 여러 유관기관 여러분께 짧은 글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7년 겨울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대표 김 하 종 신부드림

인사말

1초...1분, 1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터는 항상 아이들의 일과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2011년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갈 가정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많은 것들을 보고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시작했지만 5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며 그저 '쉼터'라는 이름처럼 쉼의 공간이 된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 서로 믿는 관계, 수다 떨 듯 일상의 소소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쉼터를 떠나 혼자 맞이해야할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후회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쉼터에 온 가출청소년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아직은 보호받고 싶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필요한 말랑말랑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인데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장기쉼터 교사들은 청소년과 함께 다가올 청년기를 위해 학업, 취업, 군입대, 제대, 진로설정 등 인생의 가장 갚진 시기를 함께하며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쉼터는 그들이 꾸는 꿈이 뜬구름이 아닌 손에 잡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 가장 빛나는 그 시기를 함께 하며 마음 편한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곳이 되고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소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 온전히 자리잡으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유관기관 및 성남시 관계자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소장 **박 주 형** 드림

2012~2016 한눈에 보는 중장기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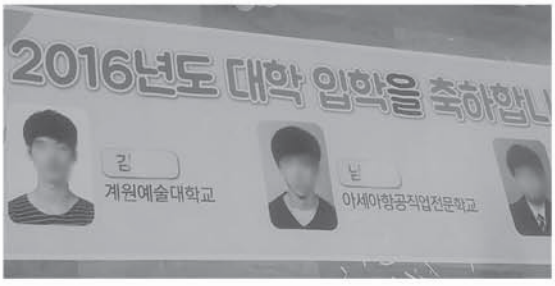
운영위원회 발족

군 입대 동행

연합 아웃리치 시작

검정고시 합격

대학입학



지역연계기관 협약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

분당우리교회 기관차량(레이) 후원

운영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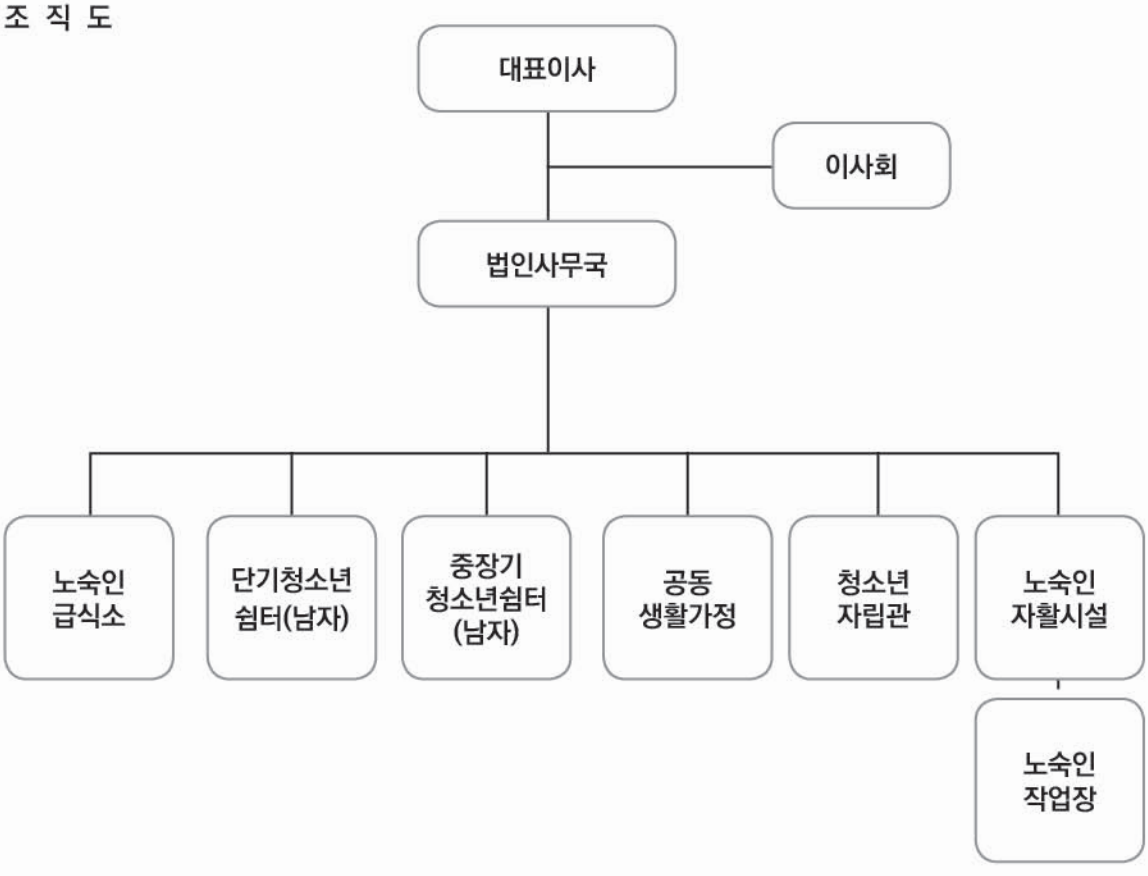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18

설 립 일 1998. 7. 7.

운영목적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시설을 운영하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노숙인 사회복귀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직 도



쉼터개요

기 관 명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21-13

설 립 일 2011. 10. 1.

총 면 적 223.44㎡

운영목적 가정기능 상실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또는 가정이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능력과 함께 지속적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진로지도, 취업알선,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 혁

일 자	내 용
2011. 1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위탁사업실시(2년)
2012. 02	쉼터 개소식
11	공부방 개보수·확장, 운영위원회 발족
2013. 04	사회적기업 자리(주) 교육 및 현장실습 협약 체결
1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재 위탁(3년)
2014. 0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 협약 체결
2015. 01	길벗한의원, 남서울치과 진료지원 협약 체결
03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07	성남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센터 업무협약 체결
08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
12	쉼터 내부 개보수
2016. 05	기관명 변경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08	소아청소년상담센터 공감 상담지원 협약 체결
09	연세푸른 정신과의원 진료지원 협약 체결
	20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종합평가(2013~2015) / 최우수기관 선정
12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재 위탁(3년)
	분당우리교회 차량지원사업 선정

직원현황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박 주 형	소 장	사업총괄, 대외협력, 후원자 관리
정 재 용	주 임	운영 실적관리, 시설관리, 수련활동, 운영위원회
장 가 람	주 임	사례관리, 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현 미 숙	행정원	행정 및 회계업무
손 주 일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교류활동, 문화활동, 안전교육
김 지 애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직업체험, 요리프로그램, 인권교육
안 순 희	취사원	주간 식단 및 식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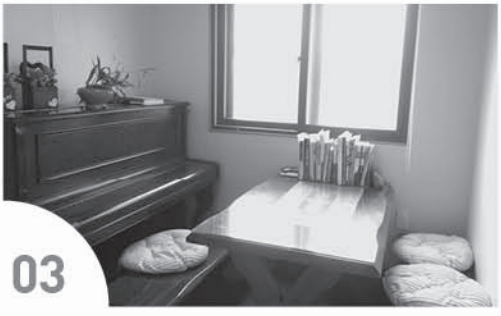
운영위원회

구 성	총 13명 (위원장 1명, 운영위원 12명)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1명, 청소년쉼터 소장 2명, 성남시 주무관 1명, 법무부 실장 1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1명, 대안학교 대표 1명, 경찰 1명, 교사 1명, 교수 1명, Wee센터 전문상담사 1명, 병원장 1명, 기업대표 1명
회 의	연 2회 정기회의, 긴급 안건사항 시 임시회의 개최
내 용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고, 입소 연장 건, 안건 논의 및 결정

시설사진

01

02



03

04

05

06

01 쉼터 전경
02 사무실
03 상담실
04 컴퓨터실
05 거실
06 헬스장

01

02

03

04

05

06

01 02 숙소
03 04 식당
05 당직실
06 공부방

운영보고

보호인원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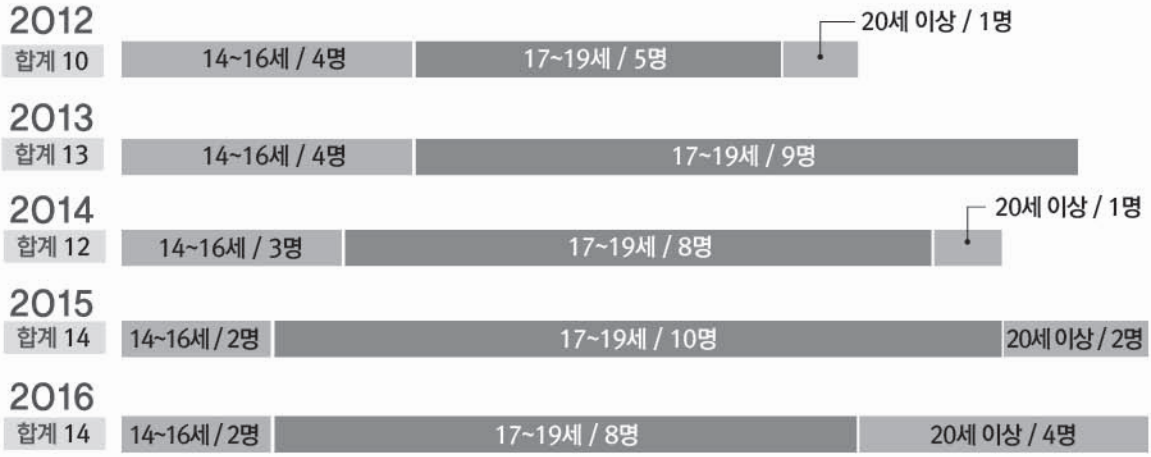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678	10	85.4	2,936	13	85.9	3,199	12	80.2
연인원	실인원	만족도	연인원	실인원	만족도	연인원	실인원	만족도

2015			2016			
2,823	14	85.2	3,078	14	95.1	정원 10명
연인원	실인원	만족도	연인원	실인원	만족도	

2012~2016년까지 본 쉼터의 정원수는 10명을 유지하였으며, 보호한 실인원수는 총 63명, 연인원은 총 14,714명이다. 만족도 조사는 2012년부터 입소생을 대상으로 계속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 2016년도에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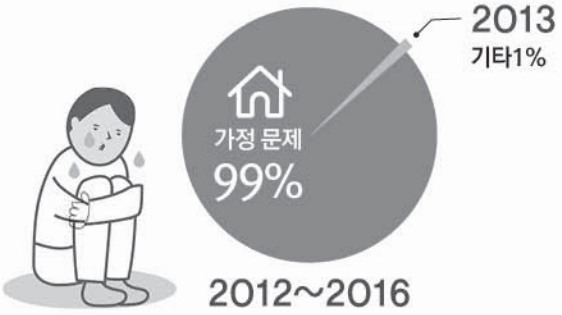
만족도가 낮은 2014년도에는 실무자들의 잦은 변동과 높은 연인원수가 만족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족도가 높은 2016년도에는 입소생들에 대한 개별 서비스 강화 및 종사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안정적인 쉼터 운영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소 연령



본 쉼터를 이용하는 입소 연령은 전체적으로 '17~19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른 년도에 비해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17~19세'에 입소했던 청소년들이 장기간 중장기쉼터를 이용하면서 '20세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출 원인



2012~2016년까지의 가출원인의 99%는 '가정'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가정의 해체, 재혼가정 내의 불화,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2013년에 1건 있는 '기타' 사유로는 유아기 때부터 가정이 아닌 종교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어 가출한 경우다.

보호기간별 현황

본 쉼터 보호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입소생의 89%가 '6개월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3~6개월'이 5%, '15~30일'과 '1~3개월'의 기간이 각각 2%를 차지하고 있다.

2012~2014년도까지 중장기청소년쉼터의 기본 입소기간은 2년이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기본 입소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었다.

기본 입소기간 만료로 인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소 연장을 한 인원수는 2012년 3명,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3명, 2016년 2명으로 5년 동안 총 14명의 입소생에 대한 입소연장이 이루어졌다.

운영 및 사업 보고

퇴소현황

2012 합계 3

2013 합계 4

2014 합계 2

2015 합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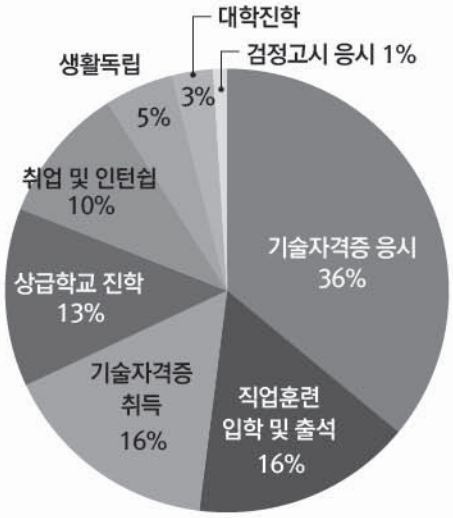
2016 합계 9

2012~2016년에 퇴소한 청소년들 중 48%는 '사회복귀'를 하였으며, 20%는 '가정복귀'를 하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귀'에는 군 입대, 취업 후 자립생활 등이 포함되며, '가정복귀'는 부모 또는 친·인척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자립 지원

2012 6건
2013 14건
2014 12건
2015 23건
2016 47건

총 102건



자립지원으로는 기술자격증 응시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 입학 및 출석, 기술자격증 취득이 각각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상급학교 진학 13%, 취업 및 인턴쉽 10%, 생활독립 5%, 대학진학 3%, 검정고시 응시 1%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대부분 단기청소년쉼터에서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중장기쉼터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쉼터에서는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보다는 주로 학업을 유지하거나 또는 자립을 위한 기술자격증 응시 및 취업준비에 필요한 기술 훈련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후관리

2012 합계 24
개인상담 7 / 전화상담 13 / 사이버상담 4 / 서신상담 0

2013 합계 92
개인상담 34 / 전화상담 38 / 사이버상담 13 / 서신상담 7

2014 합계 80
개인상담 27 / 전화상담 36 / 사이버상담 12 / 서신상담 5

2015 합계 133
개인상담 47 / 전화상담 56 / 사이버상담 16 / 서신상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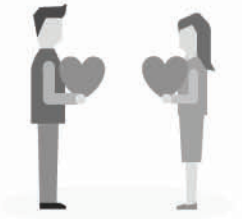
2016 합계 126
개인상담 53 / 전화상담 51 / 사이버상담 16 / 서신상담 6

중장기쉼터 개소 초반인 2012년도에는 퇴소생이 많지 않았으며, 퇴소생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작하였다.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퇴소생이 직접 쉼터로 찾아오는 '개인상담'이 43%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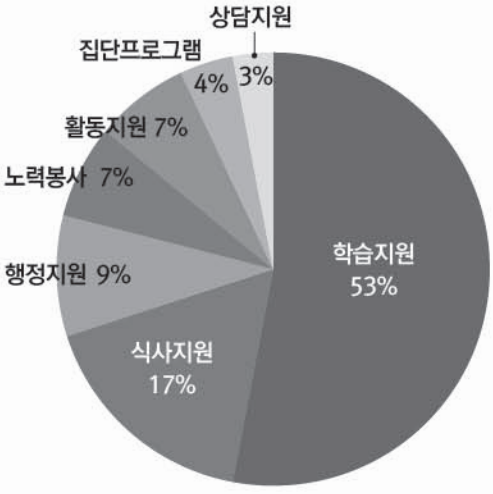
자원봉사자

봉사자 활동 현황

2012 13명
2013 23명
2014 19명
2015 18명
2016 20명



총 93명



회의 | 연 2회 봉사자 간담회 개최

내용 | 봉사활동 추진방안 및 실적 보고, 봉사활동 내용 공유, 봉사자 건의사항

2012~2016년도 까지 총 93명의 봉사자가 활동하였으며, 활동내용으로는 '학습지원'이 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식사지원' 17%, '행정지원' 9%, '노력봉사'와 '활동지원'이 각각 7%, '집단프로그램' 4%, '상담지원' 3% 순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연계기관

분류	연계기관	내 용
의료기관	남서울치과	진료지원 및 응급체계 구축
	길벗한의원	
	추이비인후과	
	이민상내과	
	스마일내과	
	연세푸른정신과	
상담기관	소아청소년상담센터 공감	각종 심리검사 및 평가 실시 개인상담, 방문상담, 집단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연계
	가천대학교 통합발달심리센터	
	이선아 언어심리상담센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타공아웃리치상담센터	
	윤성혜 언어치료사	
법률기관	성남검찰청	법률자문 및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의 협조체계 구축
	김성만 변호사	
공공기관	보건소(중원구, 수정구)	청소년 보건교육, 건강검진, 금연프로그램, 에이즈 예방 물품지원
	수정경찰서(보호관찰소 포함)	폭력예방 및 안전유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 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소연계, 학대 확인 시 의무신고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성교육 및 성상담 의뢰
	성남시청소년쉼터(일시,단기,중장기)	입소의뢰 및 연계, 연합 아웃리치 진행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원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 및 수련관 프로그램 지원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학업지원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디딤돌 대안학교	청소년활동 및 검정고시 지원
	일하는학교	청소년 인턴쉽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지역사회 연계기관	자리(주)	바리스타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지원
	KT&G복지재단	연 6회 쉼터 내 방역서비스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파견(행정 및 활동 지원)
	성남시니어클럽	공익활동사업 근무자 지원(환경미화)
	성남만남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지원(환경미화)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연합 아웃리치 진행, 성교육 지원
	별별공방	직업체험 지원
	자기자리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 및 집단프로그램 지원
	길림양행	일자리 연계
	참숯 캠핑바베큐 '때지'	
	쉐프의 부대찌개	
	화인화장품	
	카페 '미르'	후원연계

사업보고

요리 프로그램

2012년 요리프로그램은 명절 음식준비 외에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입소생 자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요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2013년부터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격월 1회씩 진행하였다. 이후 요리 프로그램이 실제 자립 시 도움이 되었다는 퇴소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부터는 월 2회로 늘려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입소생들이 직접 식단을 계획하고, 장을 보는 것까지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2

회기 : 2 / 인원 : 14
명절 음식만들기(각종 전)

2013

회기 : 5 / 인원 : 31
떡 만둣국, 호떡, 떡볶이&김밥,
추석음식(각종 전), 또띠아피자 등

2014

회기 : 44 / 인원 : 196
김치볶음밥, 비빔밥, 김치찌개,
유부초밥, 스파게티, 비빔국수,
탕수육 등

2015

회기 : 44 / 인원 : 171
동태찌개, 피자, 짜장돈까스&
나베, 주먹밥, 치킨, 메밀소바,
콩불, 제육 등

2016

회기 : 48 / 인원 : 308
골뱅이파스타, 숙주삼겹볶음,
냉면, 닭갈비, 떡만두국,
파스타 돈까스 등

2012

회기 : 48 / 인원 : 276
새해계획, 토의주제 나누기,
건의사항, 식단건의 등

2013

회기 : 51 / 인원 : 327
새해계획, 토의주제 나누기,
건의사항, 식단건의, 감사한일
나누기 등

2014

회기 : 50 / 인원 : 341
새해계획, 배려하는 방법 나누기,
건강관리, 생활약속 논의, 입소생
간담회

2015

회기 : 49 / 인원 : 294
새해계획, 대인관계 돌아보기,
건강관리, 식단건의, 입소생 간담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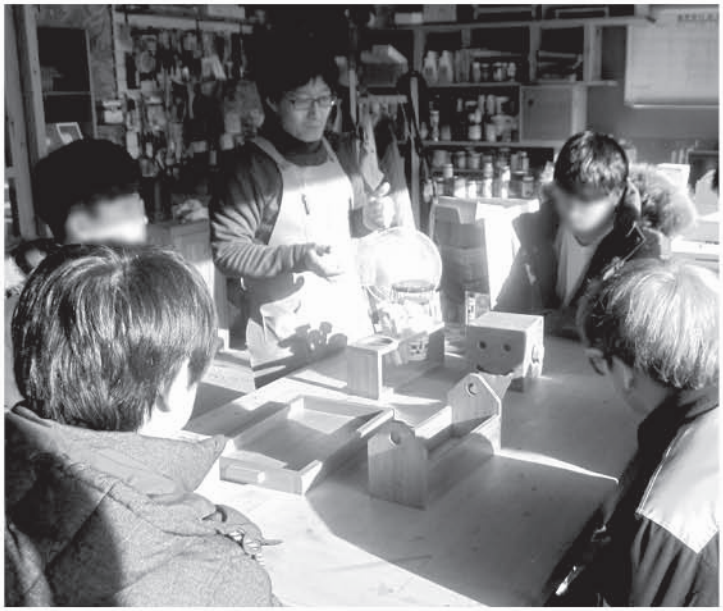
회기 : 52 / 인원 : 361
새해계획, 칭찬릴레이,
주제 나누기, 식단건의,
입소생 간담회

입소생 가족회의

2012년부터 가족회의는 주 1회 주말 티타임 시간에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새해계획, 토의주제 나누기, 건의사항, 식단건의가 있다. 2014년도부터는 가족회의를 확대하여 연 1회 입소생 및 종사자 전원이 함께하는 입소생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입소생 간담회를 통해 입소생들은 시설장에게 직접 쉼터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칭찬릴레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직업체험

2012년 직업체험은 직장예절교육이 전부였으나 2013년부터는 체계적인 직업체험이 진행되었다. 2013년도에 진행된 직업체험은 실무자 계획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입소생들의 진로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체험이 계획되었으며, 입소생 진로와 관련된 직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2

회기 : 1 / 인원 : 7
직장예절교육

2013

회기 : 6 / 인원 : 43
한국잡월드 방문, 마사회, 제빵사, 게임회사, 호텔리어, 도예가

2014

회기 : 4 / 인원 : 25
진로적성검사, 도자기 핸드프린팅, 마사회, 현대모터스튜디오 방문

2015

회기 : 7 / 인원 : 41
진로적성검사, 경비행기 조종사, 제빵사, 캐릭터 디자이너, 풍선아트, 마술사, 드림업(다양한 직업종사자 강의)

2016

회기 : 5 / 인원 : 30
직업적성검사, 바리스타, 메이크업&피부관리사, 목공사, 골프관련 직종

2012

회기 : 19 / 인원 : 89
집단상담(문장완성검사, MBTI, 이고그램, 심리검사등), 교육(성, 경제), 천연화장품 만들기, 청소년 행동평가지표

2013

회기 : 6 / 인원 : 44
토피어리, 쿠키 만들기, 교육(성, 인터넷 중독예방, 범죄예방), 연극치료

2014

회기 : 7 / 인원 : 45
애니어그램, 만들기(비누, 초콜릿), 교육(예절, 성, 경제)

2015

회기 : 10 / 인원 : 58
심리검사(MMPI-2), 만들기(소이캔들, 가구, 종이트리), 교육(인터넷 중독예방, 온라인 예절, 성, 경제, 금연, 스피치)

2016

회기 : 8 / 인원 : 51
성격유형검사(DISC), 만들기(석고방향제, 냅킨파우치), 교육(금연, 성폭력 예방, 장애인 인권, CPR, 예절 및 인성)

집단 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은 2012~2016년도까지 크게 집단상담, 교육,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집단상담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성격검사나 연극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은 기본적인 성, 중독, 금연, 경제, 안전, 인권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만들기 프로그램은 기념일(스승의 날, 크리스마스 등)에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입소생이 직접 만든 작품을 감사한 분께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류활동(체력단련 활동프로그램 포함)

교류활동은 월 2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주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배드민턴, 축구, 족구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었으며, 2013~2014년도에는 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종합격투기와 복싱이 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류활동(클라이밍, 필라테스, 수상레저 활동 등)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2

회기 : 25 / 인원 : 128
볼링, 스케이트, 축구,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족구, 야구연습장, 프라모델 만들기

2013

회기 : 35 / 인원 : 195
볼링, 축구, 농구, 배드민턴, 수영, 스케이트, 종합격투기, 조정

2014

회기 : 40 / 인원 : 210
복싱, 탁구, 헬스, 자전거, 배드민턴, 족구, 노래방, 빙상장, 보드게임

2015

회기 : 38 / 인원 : 214
야구, 클라이밍, 레일바이크, 수상레저, 나노블럭, 헬스, X-BOX

2016

회기 : 28 / 인원 : 167
필라테스, 청계천 트래킹, 수상레저, 스크린 야구, 볼링, 당구, 빙상장

2012

회기 : 14 / 인원 : 74
연극, 영화, 롯데월드, 승마체험, 캐리비안베이, 서울랜드, 아쿠아리움, 오페라, 수원화성 탐방

2013

회기 : 15 / 인원 : 120
식물원, 등산, 스파, 영화, 박물관, 뮤지컬, 미술관, 놀이공원, 연극관람

2014

회기 : 16 / 인원 : 92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놀이공원, 아쿠아리움, 오션월드, 카트체험

2015

회기 : 16 / 인원 : 86
콘서트, 영화, 이태리대사관 방문, 재즈페스티벌, 난타, 사진전 관람

2016

회기 : 13 / 인원 : 81
빙어낚시, 남한산성 문화탐방, 벚꽃축제, 사진전, 뮤지컬, 마술공연

문화활동

문화활동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외부 지원 무료공연을 포함하여 놀이공원, 영화관람, 지역축제 참여, 박물관 탐방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명절에 원가정 방문이 어려운 입소생들을 위해 진행한 문화활동은 입소생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켰으며, 연 1회 이상의 특별 문화활동(승마, 뮤지컬, 대사관 방문 등)은 입소생들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수련활동

2012~2013년도까지는 연 3회 수련활동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종사자 및 입소생 전원이 함께하는 소풍을 1회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2016년도 동계캠프는 입소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소생들이 직접 예산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함으로써 여행을 즐기고, 시간활용 능력 개발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2

회기 : 3 / 인원 : 21
춘계소풍(서바이벌게임, 갯벌체험), 하계캠프(래프팅, 아바이마을체험, 설악산등반,산악오토바이),동계캠프(계룡산 등반, 공산성, 무령왕릉 관람)

2013

회기 : 3 / 인원 : 22
춘계소풍(킹콩체험, 숲 체험), 하계캠프(바다체험, 바나나보트, 낚시체험), 동계캠프(철원 안보체험 및 단기쉼터와 연합캠프)

2014

회기 : 4 / 인원 : 28
동계캠프(반지 만들기, 스파), 하계소풍(계곡), 하계캠프(캠핑, 양궁체험, 수상레져, 문화탐방), 추계소풍(수목원, 챌린지)

2015

회기 : 5 / 인원 : 35
춘계소풍(치즈 만들기, 한지공예, 전통놀이), 하계소풍(계곡), 하계캠프(영상테마파크, 도자기 체험), 추계소풍(에버랜드), 동계캠프(스키, 스파)

2016

회기 : 4 / 인원 : 32
춘계소풍(캐리비안베이), 하계캠프(경포호수 자전거 체험, 생태체험), 추계소풍(남산타워, 한강 유람선), 동계캠프(제주도 조별 여행, 박물관)

운영 및 사업 보고/ 중장기 타임라인

2012

회기 : 6 / 인원 : 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교육, 정신병리(소아우울증) 교육, 직장 내 스트레스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교육(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2013

회기 : 13 / 인원 : 15
경기도 청소년활동 공모사업 설명회, 자원봉사관리 프로그램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청소년쉼터 역량강화교육, 실무중심 회계·세무 교육, TC 집중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교육(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2014

회기 : 14 / 인원 : 2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설명회, 청소년쉼터 역량강화교육,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코디네이터 심화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교육(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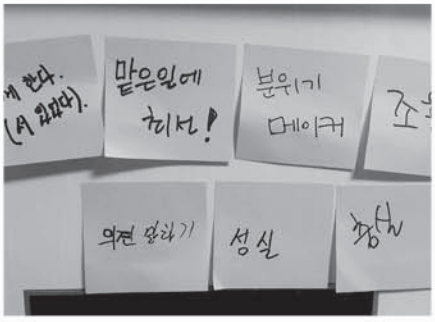
회기 : 23 / 인원 : 23
덕영재단 워크숍,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청소년쉼터 역량강화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한·중 청소년교류 2차 파견 인솔자 참석, 성상담전문가 워크숍, K-WAIS-IV(지능검사) 워크숍, 청소년상담사 교육연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교육(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2016

회기 : 17 / 인원 : 26
청소년쉼터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 시설회계의 이해와 실전실무,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교육, 특화사업운영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운영, AJ 초청 치료공동체 교육(청소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필수교육(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실무자 프로그램

본 쉼터는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보수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회계, 상담, 소방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쉼터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은 매년 참석하고 있으며, 이 외에 한·중 청소년교류 행사에 인솔자를 파견하는 등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희망이 초대석

남OO

희망 스타트 14. 8. 6.

Q. 입소 전 vs 입소 후 다른 점은?

입소 전 보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공부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처음 해봤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저는 공군 부사관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부사관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단순 필기시험을 봐서 부사관이 되거나, 자격증이나 영어성적을 가지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항공정비과 부사관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붙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항공정비사 면허장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사관이 된다면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일하고 싶어요.

Q.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옛날부터 생각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만약 부모가 된다면 제 자녀에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좋은 부모는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또한 제가 어릴 때는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어려움을 밑바탕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Q.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지금은 누구나 아는 최고의 축구선수이지만 이 분도 어릴 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노력해서 성장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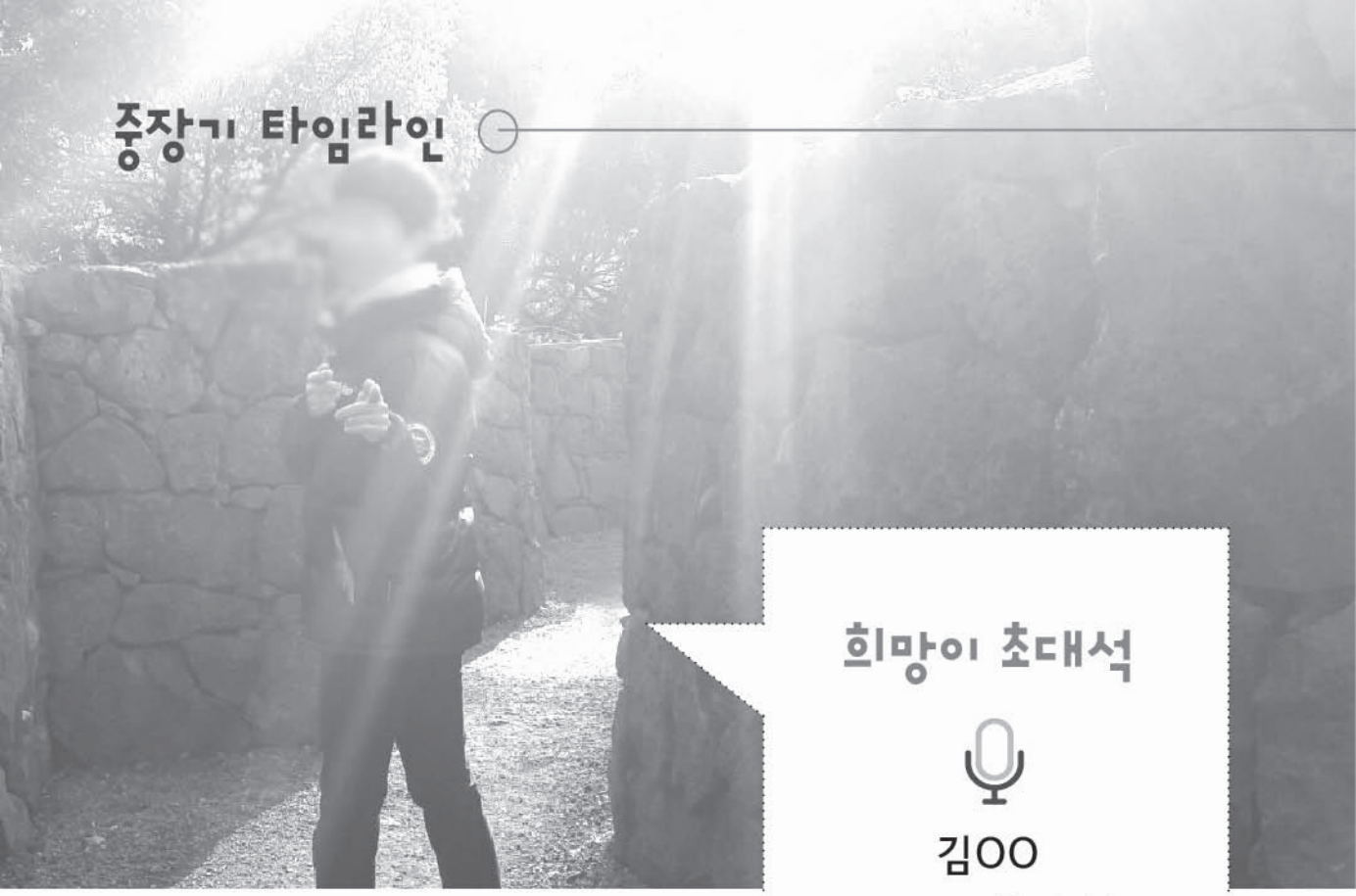
Q. 나에게 쉼터란?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안정적인 곳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니까 저에게는 고마운 곳이죠. 저는 여기서 지내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Q. 쉼터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쉼터'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쉼터'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타임라인



희망이 초대석

김OO

희망 스타트 13. 1. 19.

Q. 입소 전 vs 입소 후 다른 점은?

입소 전에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많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입소 후에는 성격도 많이 달라졌고, 다른 친구들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좋아요.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소기업 사무직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 출석도 잘 할 거고, 관련 자격증 준비(전산회계, 워드 등)도 할 거에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Q.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어른이요.

Q.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현재 담임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기도 힘드신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요.

Q. 나에게 쉼터란?

저에게 쉼터란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취업을 위해 학업이나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졌었기 때문이에요.

Q. 쉼터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만족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만 유지되면 좋겠어요.

봉사자의 글

최영미 봉사자
이매동성당

쉼터에서의 나의 하루, 내 인생의 활력소

**내가 처음으로 쉼터에 갔을 땐 같은 또래 내 아이가 있는데도
왠지 아이들이 어렵고 낯설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날이면, 아이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 '아점'만 먹고 기다렸다며 황급히 내려와 준비한 음식을 다 같이 차려 맛있게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서로를 챙기며 고기를 앞에 놔주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고 떠들며 먹는 모습들은 참으로 보기 좋다.

한번은 새로운 아이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고기쌈을 아주 크게 싸서 직접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 때 나는 감사함과 감동을 한꺼번에 받았다. 또한 설거지를 아이들이 하겠다며 당번을 가위 바위 보로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졌고, 아이들이 다 내 자녀 같고 편해짐을 느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있던 친구가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음식점 아르바이트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안심이 되고, 잘 자라 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애들이 훌쩍 자라 직장에 다닌다고 떠났지만 시간을 내어 주말에 쉼터로 저녁을 먹으러 오면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나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쉼터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되면 좋은 추억이 되리라 생각한다.

갈 때마다 반겨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아이들이 있어 쉼터에서의 나의 하루, 주말봉사는 내 인생의 활력소이다.

봉사자의 글

유봉영 봉사자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

보석과 같은 선물

쉼터에서 어린 친구들과 인연을 맺게 된지 벌써 일 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순간, 먼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늦게 삶을 살아오고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걸어온 길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의 직업이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일이지만, 단순히 선생님으로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 그이상의 나눔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알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쉼터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과학과 수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역할 그대로를 이곳에서도 하고 있지만, 쉼터에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지식의 전달 그 이상의 교감이 있음을 분명히 느낍니다.
어쩌면 그리 길지 않은 인생에서 한번 좌절해 본,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것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본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동기가 그들 마음 안에 생겨나는, 그로인해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을 거라는 새로운 빛에 조금씩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이었습니다.
고백컨대,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가 나누어준 것의 몇 갑절의 행복을 제가 받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자그마한, 보잘 것 없는 지식들과 시간들안에서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어린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있어 크고도 소중한 보석과 같은 선물이었으며, 결국 지금까지의 쉼터에서의 경험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받아가는 감사와 황송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끌어 오신 쉼터의 활동과 운영의 소중함이 올바르게 평가 받고, 청소년 쉼터가, 더욱 많은 도움과 지원 속에서,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나누지 못하는 많은 방황하는 어린 친구들이 좀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자 인터뷰

이경규 봉사자

서울교통공사

만족할 줄 아는 삶

Q.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1991년부터 안나의 집 무료급식소에서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아내의 권유로 안나의 집 시설물 관리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중장기쉼터에서는 개소 일부터 지금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Q. 장기간 봉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안나의 집 대표님(김하종 신부)이 타국에서 오셔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대표님의 영향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장기간 봉사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앙심 때문입니다.

Q. 봉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중장기쉼터 아이들이 생각보다 밝다는 것을 느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셔서 예전보다 지금은 저를 만날 때 인사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Q.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시작하기 보다는 '내가 많은 것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비판보다는 오늘 하루 행복했던 것, 내가 잘한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등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중장기쉼터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만족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자주 가지면 좀 더 좋아지겠죠? 게으르면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도 선택할 수 없고, 그러다보면 선택할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불만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지역연계기관의 글

김 휘 정
연세푸른정신과
심리상담센터 공감

청소년을 돕기 위한 나의 자세: 인간에 대한 깊은 믿음

정신과 병원, 대학교,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서 상담일을 해온 지 15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내가 하는 상담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자책하면서 반성을 해보지만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회에 기여하는 유익함을 증명해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양육과 교육 및 사회문화 속에서 살다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발달하지 못하여 쉽게 분노를 느끼고, 좌절감에 무기력해지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게 뭘까? 지난 수년간 상담을 배우고 상담현장에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최근에서야 겨우 깨닫게 되는 작은 희망은.. "자신을 좋게, 편안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결국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의지나 태도 및 삶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는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으로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수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엄청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양육과정에서의 정서적인 경험이 필수적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경험의 결핍으로 인하여 한평생 삶에 시달리게 된다.

등교거부, 친구들 괴롭히기, 가출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다보면 나는 스스로 부끄럽고 미안해진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로운 삶의 환경 즉, 보다 따뜻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어서 어른, 상담사, 그리고 부모로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구성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타인들과 공존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는 각자가 삶의 만족을 스스로 추구하고 발견하는 등 새로운 인식에 따라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중에 쉬운 방법은 인정욕구를 타인에게서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믿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존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 존중과 수용의 자세를 충실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수용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믿음과 존중의 자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본다. 모두가 "나답게" 살게 될 때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믿고 존중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후원자의 글

정 현 영 후원자

카페 '미르'

사소한 실천, 함께하는 기쁨

안나의 집과의 인연도 벌써 5년의 시간입니다.
아이가 있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마음들..

그저 막연하게 자동이체만을 하던 후원회원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알아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제게 더 큰 기쁨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마음만큼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소극적으로나마 주변에 안나의 집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보람됩니다.
천주교를 종교로 갖고 있지 않지만 성탄절이면 가족이 함께 안나의 집 미사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신부님의 말씀 중에 우리는 성인으로써 방황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
그 말씀에 크게 공감하였고 부끄러웠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서야 조금은 알게 된 책임감이 분명해지더군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 주변엔 경제적으로는 이미 벗어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할 이웃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기부. 나눔의 무게를 다소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안나의 집을 통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도 나눔이 될 수 있구나.
그 조차도 머뭇거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요..

글을 쓰는 중에도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결국 제게 나눔은 생활을 정돈시키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스스로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는 일임을 매일 깨닫습니다.

넉넉해서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몫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입소 청소년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의 발전방향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 연 1회 건강검진 및 종합심리검사를 통한 신체적·정서적 어려움 파악 및 개입
- 원가정 개입 상담을 통해 보호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 종사자와 멘토-멘티 관계 형성 및 교류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경험
-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진로에 따른 개별화 프로그램 확대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 지원

전문성을 갖춘 장기근속 종사자

-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노력 /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통해 원활한 소통의 장 마련
- 외부 전문교육 수강 후 교육내용을 활용한 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쉼터

- 지역사회 취업처 발굴을 통한 입소 청소년 연계 및 자립 지원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쉼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위기 청소년 발굴
- 봉사자 활용 및 후원자 연계를 통한 쉼터 지원서비스 질 향상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5개년(2012~2016) 운영·사업보고서

발 행 일	2017년 12월 31일
발 행 처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발 행 인	박주형
편 집 인	장가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21-13
전 화	031)752-9050
팩 스	031)758-9050
이 메 일	jnshimter@hanmail.net
홈페이지	www.bestboy.co.kr